

무주반딧불축제 경제효과 150여억원

평가발표회 갖고 발전방안 모색... 42만명 방문 · 3無 축제 · 프로그램 등 만족도 높아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가 지난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평가발표회는 지난 축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유승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 등 전문가들과 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영상물을 시청한 뒤 평가발표회를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발표회가 지난 3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개최됐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조사 응답(9. 2. ~10. / 신비탐사객 포함 축제 방문객 표본 560명 대상 / 설문, 축제 현장 모니터링 등)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축제 기간 개최됐던 행사를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과 완성도 등에 대한 의견,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에 대한 방문객 평가와 발전방안 등이 공유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방문객 수는 42만여 명, 경제효과는 약 150억 7천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지인(전북) <서울/경기> 대전 등)의 비율이 86%로 월등히 높았으며 유형은 가족·친구 단위(약 88%), 20~40대 방문객 비율(약 93%) 높다.

이들의 행사장 체류시간은 4~5시간(약 40%)이 가장 많았으며 행사장 만족도는 빛의 향연(나뭇잎이, 드론쇼) > 물벼락 페스티벌 > 야간 경관/프로그램 > 그리고 반디누리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 만족 4.01점 / 프로그램 만족 4.01점 / 신비탐사 4.62점 - 5점 만점)가 두드러졌으며 △야간축제의 자리매김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이러 △3無(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일회용품) 축제 기회 의도가 적절했던 점, △더운 날씨를 고려한 편의/휴게 시설 확대 운영, △복원된 물벼락 페스티벌 등 어린이 방문객 호응 유도, △먹거리(행사장 식당, 천원국수, 야간 먹거리)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가 적절했다는 결과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주간 반딧불이 관람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야간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 △3無 축제 이미지

확립의 지속, △20~30대를 겨냥한 프로그램 확대, △방문객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강화,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정보와 초청 가수, 불꽃놀이(나뭇잎이), 반딧불이 등이 주로 언급됐으며 약 82%가 '즐거다, 좋다, 안전, 가고 싶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를 발표한 김관영 교수(백석대학교)는 총평을 통해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 평가(행사 만족 4.01점 / 프로그램 만족 4.01점 / 신비탐사 4.62점 - 5점 만점)가 두드러졌으며 △야간축제의 자리매김이 돋보였다고 전했다.

이러 △3無(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일회용품) 축제 기회 의도가 적절했던 점, △더운 날씨를 고려한 편의/휴게 시설 확대 운영, △복원된 물벼락 페스티벌 등 어린이 방문객 호응 유도, △먹거리(행사장 식당, 천원국수, 야간 먹거리)운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가 적절했다는 결과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향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주간 반딧불이 관람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야간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운영, △3無 축제 이미지

무주군발전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가져

무주군발전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이 지난 3일 무주수원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미래 농업과 향노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지역주민과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주군 홍보 동영상 시청하고 콤비마케팅 김광호 연구원장이 진행한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군민 역량 강화' 교육을 들으며 상호 의견을 나눴다. 무주군발전협의회 회장인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많은 미래 지역 생존을 위한 타계책을 고민해보고자

오늘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주군 발전과 군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에 회원 모두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격려사를 통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변화를 위해 지식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때"라며 "모쪼록 이 시간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변화를 위해 군민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 '호응'

진안군먹거리위원회와 함께하는 도시 소비자 교류행사 개최

진안군은 도시권 소재 진안로컬푸드 소비자들과 지역 생산농가, 먹거리위원회의 상생과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가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0월 29일과 11월 4일 및 5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는 진안군이 지난 4월 공모에 따라 선정된 지역단위푸드플랜 구축지원 사업(지역먹거리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두 번째 일정으로는 진안읍 고구마 재배 농가(농가주 노병용)를 방문해 고구마 농사짓기부터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과정까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정고구마 시식에 이어, 꺾고구마 캐기를 진행했다.

특히 상반기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행사의 긍정적 효과와 높은 호응에 힘입어 진안군먹거리위원회와, 도시소비자, 지역생산농가의 교감과 유대를 통한 신뢰를 강화하고 먹거리의 소중함과 먹거리를 통한 도농상생의 중요성을 되새겨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 각 회차당 30여명 이상, 총 90여명의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 호성점 소비자들과 먹거리위원회 분과위원들은 첫 번째 일정으로 마령면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스마트팜 재배시설을 견학했다. 농가주(송인관)로부터 토마토 시설재배에 관한 과정과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한 가족 등 일행과 함께 토마토를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점심식사는 정천면 학동마을에서 지역 먹거리로 만든 시골밥상으로 진행되고, 오후에는 지역 특산품인 '씨없는 꽃감 만들기'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등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끝으로, '푸드마일리지와 로컬푸드'란 주제로 먹거리의 중요성과 도농상생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호성점으로 이동해 장보기 체험을 끝으로 행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진안군 먹거리위원회 김종필 위원장(부군수)은 "이번 소비자 교류행사가 도시 소비자들에게 진안로컬푸드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키우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우리 진안군 먹거리위원회에게도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따뜻한 상생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출항민 대상 귀향 프로젝트 진행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진주)는 지난 3일~4일까지 1박2일 간 진안군 출항민 20명을 대상으로 귀향 프로젝트를(이하 팜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팜투어는 진안이 고향이냐 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항민들에게 군으로의 귀농 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 시례, 귀농 선도농가 방문, 진안 야경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김진주 센터장은 "전춘성 군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출항민 대상 귀향 프로젝트를 실행해 행정과 소통하는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어 기쁘고 팜투어를 통해 출항민이 진안군으로 귀농귀촌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 시작

장수군은 지난 3일부터 2023년 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품종은 신동진, 해당쌀 2개 품종이며 매입물량은 4,230톤(건조벼 1,511톤 산들벼 2,719톤)으로 지난해(4,068톤)보다 162톤 증가한 수치다. 이날 최희식 장수군수는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현장을 방문해 매입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수직 준수를 당부하며 직접 현장을 살폈다. 매입장소는 농가 편의와 운송 안전성 등을 고려, 장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을 포함한 각 읍면에 지정된 총 8곳에서 진행된다. 공공비축미 매입대금은 구매 직후 중산정산금 3만원(40kg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 12월 중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매입 농가는 매입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다른 품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평생학습 박람회서 인기 절정

진안군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aT센터(서울시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해 체험 및 홍보부스를 생황리에 운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는 2012년부터 전국 평생학습 관련 기관 등이 참가해 평생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교육 문화진흥을 위해 교육부가 주최하며 올해는 '학습국가 혁신, 평생학습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3일간 열렸다.

로 지정된 진안군은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과 12개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전북형 근거리 학습공간인 '모두매우터'를 공동 홍보하고, 체험활동으로 '제로웨이스트, 마이산 호두 키링만들기'를 평생학습 프로그램(강사 유육주)으로 진행했다. 또한 별도로 교육지원팀에서는 진안관광, 고향사랑기부제, 진안홍삼 제품 등을 시음·시식할 수 있는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2001년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진안군 최초 평생학습도시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군사관학교 1기 교육생 입교

장수군은 지난 3일 농군사관학교 1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입교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이날 입교식에서는 농군사관학교 스마트팜 교과목 소개 및 교육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이어 '스마트팜 정책 및 농업 경영의 이해'라는 주제로 첫 교육이 이뤄졌다. 지난 10월 선발된 1기 교육생들은 앞으로 9개월 동안 ICT 및 복합환경관리

등 스마트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직접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실습 과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창업에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 농업인에게 △수료생 대상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부여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연계 관련 정보 제공 △스마트팜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